

온누리상품권과 모럴 해저드



김승호의
시선

온누리상품권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온누리상품권은 민간의 소비가 전통 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이런 효과 때문에 매년 발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5조원 수준이었던 발행 금액은 내년엔 5조5000억원까지 늘어난다. 2019년만해도 2조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

온누리상품권 매출 1·2·3위는 대구 팔달신시장에 있는 채소가게였다. 하나는 실존하는 마늘가게였고 두 곳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였다. 세 가게는 아빠, 엄마, 아들이 각각 주인이었다.

그런데 이들 가게 세곳은 매달 평균 192억원에 달하는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했다. 마늘이 그렇게 많이 팔렸을리는 만무하다.

정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고려하면 매달 10억원 가량이 이 가족에게 흘러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족은 소위 '상품권깡'만으로 앉아서 한 달에 1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 돈은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처럼 온누리상품권을 놓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지자 중기부가 최근 부랴부랴 1차 대책을 내놨다.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악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15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7곳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배를 불린 대구의 가족도 물론 포함됐다.

브로커를 이용해 대규모로 온누리상품권을 거래해 사익을 챙기거나 자전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2

년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 116건에 달하기도 했다. 적발후 조치는 과태료가 107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서면경고 등은 7건이었다. 72건을 적발한 2023년엔 과태료가 9건에 그쳤고 서면경고 등이 6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중기부는 이번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법을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의 일에 대해서 환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마늘가게도 마찬가지다.

결국 경찰의 추가 조사에서 처벌 수준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중기부는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종이상품권에 국한돼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으로 대체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맞춘 변종 수법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참에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선의의 정책을 악용한 이들에 대한 본때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bada@metroseoul.co.kr

가상화폐 투자



이지수첩
이승용
(금융부)

미국 대선이 종료된 시점에서 국내투자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투자처는 가상자산시장일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친(親)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 바이든 정부와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금융규제완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개선, 미국채 발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유동성 증가 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 속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년 만에 3조 달러(약 4205조 4000억원)를 돌파하면서 가상자산시장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제대로 증명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10명중 7명은 가상자산의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비트코인이 왜 대장주로 불리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 어떤 투자가치가 있는지 등은 관심이 없었다. 그저 "요즘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니깐, 더 오른다고 하니깐 투자하는거다"라는 말뿐이었다.

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도지코인'을 샀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도지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코인종 하나다.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머스크가 'DOGE' 수장이 됐다는 소식에 '그럼 도지코인 오르겠네'라는 생각

에 매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소식이 나온 후 '도지코인'은 돌연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0%넘게 하락중이다.

가상자산시장에 새롭게 유입된 투자자들이 투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20여년 전 '닷컴버블'를 떠올리게 한다.

인터넷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진 투자자들은 광기어린 모습으로 정보기술(IT) 기업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하지만 나스닥은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했고, 국내 코스닥시장 역시 폭락하면서 당시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에도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가 작용하면서 많이 투자자들이 유입됐지만 결국 불행한 결말을 기록했다. '닷컴버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투자자들의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고 투기적 투자가 아닌 건전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lsy2665@

오늘의 운세 11월 18일 (음 10월 1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법. 48년생 인생에 후식이 없이 바쁘게 간다. 60년생 신세 젤던 사람의 빛을 갚는 날. 72년생 이사할 때 이웃사촌이 형제보다 낫다. 84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소 37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49년생 천재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 61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나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 73년생 자격지심이 아닌 자존감을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85년생 가려움증이 생기니 마음이 우울.

호랑이 38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50년생 배려를 안 하니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62년생 먹는 것에 배탈 유의해야 하는 날. 74년생 저금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 86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실천하라.

토끼 39년생 여의주가 손에 들어오니 좋은 일이 있다. 51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63년생 푸른색이 행운을 가져온다. 75년생 이직해서 하던 일에서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87년생 다툼이 생기니 쉬운 날이니 자중.

말 40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상책. 52년생 연인의 사랑이 찾아오니 기쁜 일이 생긴다. 64년생 가족의 협조로 일이 잘 성사. 76년생 누구든 항상 태양은 우리 곁에 있듯이 행운도 내게 있다. 88년생 가족간 시비가 있을 수 있다.

뱀 41년생 줄이 길어도 포기하지 마라. 53년생 작은 결함으로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 65년생 마음은 불행해도 재물은 들어온다. 77년생 무슨 일든 시작이 있어야 결과와 있게 마련이다. 89년생 오랜만에 집안에 경사가 생긴다.

말 42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 없다. 5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것도 지혜. 66년생 물이 깊어야 고기도 모이는 법. 78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90년생 조직에서 시시비비 거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양 43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용서로 이루어진다. 55년생 백만 송이의 장미가 길에 널려있다. 67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79년생 누구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도록 실력을 갖추자. 91년생 사랑에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원숭이 44년생 진로수정을 심각하게 고민. 56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행동. 6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80년생 용기가 없다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 92년생 꼬인 일은 오후에 해결.

닭 45년생 가정의 화목이 가장 먼저이다. 5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자. 69년생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81년생 직장에서 핸드폰 들어오면 지 말고 일 열심히 하도록. 93년생 기다리던 부동산 문서는 잘 살펴라.

개 46년생 변동이 있어도 초지일관해야 한다. 58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70년생 이체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인다. 82년생 말이 많다 보면 불필요한 실언도 많게 되니 진중히. 94년생 불어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린다.

돼지 47년생 마음이 울적할 땐 슬피하라. 59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배신하기도 한다. 71년생 생각이 많은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83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었으나 의외의 곳에서 재물소득이 발생된다. 95년생 장사로 이득이 많으니 좋은 날이다.

김상회의四季 장수사주

장수하는 사람들의 사주는 조후가 원만함이 특징이다. 이는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면역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주 팔자 글자 중에 한 종류의 오행이 양 또는 음 기운이 쏠려 있게 되면 강한 쇠나 아름다리나무는 강한 충격이나 바람에 부러지지만 가느다란 갈이나 관목은 휘기는 해도 부러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가 오고 가는데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강한 개성의 소유자들일수록 심중팔구 금(金)오행 과다던지 목(木)오행 과다던지 하여 고집도 세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전생의 업의 결과로 단명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도 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종교 중에서도 현생을 전생업의 결과로 보는 불교적 업 연기설로 해석되기도 한다. 마음으로 보는 통찰의 지혜로 보자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혹여 단명사주라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면 방생을 많이 하고 육식을 되도록 자제할 것을 권한다. 산 생명을 마구잡이로 해치어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말게 하는 취지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의 오랜 인연 신도인 H여사는 경기도 한 저수지 바로 옆에서 매운탕 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불교에 입문했는데 자신의 생계인 민물매운탕집이 불교 오계의 첫 번째인 "산목숨을 해치는"일의 으뜸이 되는 것을 알고는 과감히 생업을 접었다. 그러는 중에 얼마 안 있어 위암 초기를 진단받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권하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거부했고 신행과 수행에 마음을 두어 매진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진단받은 위암이 사라졌다. 병원에서 드문 경우라 얘기했다. 업을 바꾸는 데도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한 것이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http://www.argo9.com

2		6		4	7
	8	5	2		9
1					
	4		7		6 3
		1	8		
7 6		9			8
					9
	2	9	6	3	
9	8		4		5

		1	4	7	
	4				3
6		5	9		4
	9	4	7	2	
5					9
	6	9	5	8	
1		3	2		6
	6				1
	2	7	5		

9	1	9	7	8	8	2	6
8	8	2	9	1	6	9	2
6	7	2	9	8	9	1	8
2	8	9	6	7	1	9	2
7	2	6	8	9	1	2	8
8	9	1	9	2	6	7	8
9	2	8	6	8	2	7	9
1	6	8	2	7	9	2	8
2	9	7	1	8	9	6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55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